시·도교육청 곳간 불리나?…교부금 수천억 '낮잠'

초과세수로 크게 늘어 기금 적립
시설·재정안정화 등 활용 예정
"지출 항목 찾지 못해…개편해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의 상당액을 각종 기금으로 쌓아둘 전망이다.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올해 53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추경 예산의 용처를 당장 찾지 못해 효율적 편성보다는 '일단 챙겨두자' 식 대응으로 기금의 상당액을 내년으로 이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교육교부금 개편과 함께 향후 세수 감소로 내년부터는 교육 관련 예산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기금 적립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일고 있다.

19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조 2,28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1,82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추경 예산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도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6,82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478억원을 적립하는 등 전체 세입 예산 중 75.7%인 9,304억원을 기금으로 활용했다.

금융권에 이자를 받고 예치하는 형태의 기금은 내년도 본예산 때 지방채 상환비, 재난재해 복구비, 장기시설 투자금 등으로 편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교부금이 내곡세와 연동돼 있다보니 추경 재원이 늘었다"며 "다음달 초 추경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충분히 집행할 기간이 없어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불용으로 남게 될 경우 내년으로 이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도 다음주 정도에 6,200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확한 세출 예산 항목은 다음주에나 나올 예정인 가운데 도교육청처럼 수천억원이 기금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정부 세수가 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예전보다 증가해 추경 규모가 커졌다"며 "당장 예산을 지출할 곳을 찾지 못해 상당 액수를 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중 재정안정화 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많은 교육예산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고, 국가적·사회적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감소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일괄 지급하게 돼 있는 교육교부금을 축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교육교부금은 사회적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심각한 예산 편중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이 남는 교육교부금을 쓰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고 있다"며 교육교부금 개편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여성예술인연대가 19일 오전 광주 전일빌딩245 시민마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의 엄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광주 여성예술인들 "연극계 성폭력 엄벌해야"

피해자 복귀·재발 방지 촉구

광주여성예술인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의 예술계 복귀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여성 연극인과 미술인, 영화감독, 음악가, 화가 등 예술인 162명으로 구성된 '광주여성예술인연대(가칭)' 는 19일 전일빌딩 245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광주여성예술인연대는 "피해자들은 예술계 평판과 추방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공론장에 뛰어들었다"며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문제가 드러나는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의 예술계 복귀와 재발 방지를 위해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성폭력을 예술적 자유이자 특권으로 포장해왔던 연극계 권력자에 대해 예술계는 오랫동안 은폐해왔다"며 "내부고발을 적대시하고, 불온하다고 치부하는 도덕적 불감증이 생존자의 미래마저 암흑 속으로 처박았다"고 지적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전남 폭염주의보…일부 지역 열대야

광주·전남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19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와 구례·곡성·광양·담양·보성·순천·화순 등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상청은 이번 무더위가 이틀동안 이어지고 오는 21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

또 비가 멈추면서 기온이 올라 전남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남부먼바다는 바람이 초속 10~14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5~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린 뒤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낮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질환자 등은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민 기자

광주 경찰 갑질·근무지 이탈 '기강해이' 도마위

광주지역 일선 경찰 간부들이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이 잇따르면서 기강해이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동부경찰서 A 과장(경정)이 직원들에게 도 넘은 갑질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 과장은 주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식사비를 내게 하는 등 부당한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길에 자신의 짐을 들게 하거나 여경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업무 외 대화를 자주 하는 등 평소에도 행실이 좋지 못했다는 게 주변인들의 증언이다.

광주경찰청은 A 과장을 직무해제한 뒤 대기발령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중간 관리자급 일부 경찰관들도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상급 부서의 진상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기동대원들이 야간 교통·방범 근무에 투입됐을 때 현장 지도 명목으로 청사를 빠져나와 근무시간이 끝나기도 전 무단 조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현장 지도를 나섰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맡은 임무를 제 시간까지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ROTECH 현대로오텍(주) E&T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안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EPC :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변전소턴키공사 :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몰드변압기

■ 배전반

■ 주변전실 배전반

대표이사 노 정 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